

쏘니, 챔스 결승행을 부탁해

내일 새벽 4시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토트넘 vs 아약스



꿈의 결승무대 vs 시즌 끝...갈림길에 놓여
토트넘, 두골 차 이상 이겨야 결승 티켓
결승무대 경험, 한국 선수 중 박지성이 유일

꿈의 결승 무대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시즌을 끝낼 것인가. 손흥민(토트넘 홉스퍼) 앞에 갈림길이 놓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9일 오전 4시(한국 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아약스(네덜란드)와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1일 홈 1차전에서 0-1로 진 토트넘으로서는 승리 말고는 생각할 게 없는 2차전이다.

이번 2차전에서 토트넘이 1-0으로 승리한다면 연장으로 승부가 이어진다. 두 골 이상 넣고 이기면 골득실차가 같더라도 원정 다득점 규정에 원칙에 따라 무조건 토트넘이 결승 진출권을 거머쥔다.

물론, 아약스는 비기지만 해도 결승에 올라 UEFA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포함해 통산 다섯 번째 대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최근 정규리그 2경기를 포함해 3연패를 당한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다시 기대를 건다.

토트넘은 주포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손흥민마저 경고누적으로 뛰지 못한 1차전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치면서 무득점 패배를 떠안았다.

손흥민에게도 이번 아약스전은 연이은 아쉬움을 털어낼 중요한 일전이다.

챔피언스리그 1차전 패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아 했던 손흥민은 지난 4일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토트넘 이적 후 처음으로 자신의 프로통산 두 번째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토트넘은 이날 본머스에 0-1로 졌다.

다. 퇴장 징계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출전할 수 없게 된 손흥민은 그래서 이번 아약스와 경기를 더욱 베푼다.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손흥민의 득점포가 절실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12골(6도움)로 마감했지만, 챔피언스리그가 있어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2016-2017시즌 21골)에도 계속 도전할 수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총 20골을 터트렸으나 지난달 18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두 골을 넣은 이후로는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에게는 이번 경기가 올 시즌 최종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지성에게만 허락했던 무대다.

잉글랜드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은 2008-2009시즌 바르셀로나(스페인)와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했고, 바르셀로나와 재결합한 2010-2011시즌 결승전에도 나와 풀타임을 뛰었다.

토트넘이 결승에 오르면 바르셀로나 또는 리버풀(잉글랜드)과 오는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단판으로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지난달 18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와의 8강 2차전에서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올린 뒤 동료에게 '손가락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유소연 '매치 퀸' 가린다

15~19일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출전

박인비(31)와 유소연(2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 출전한다.

'골프 여제'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KLPGA 투어 대회 20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결승에서 김아림(24)을 꺾고 정상에 오른 박인비는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우승해 더 좋았다"며 "올해 더 멋진 플레이를 국내 팬들에게 보여드리

도록 노력하겠다"고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각오를 전했다.

유소연은 2015년 하이원 리조트 대회 이후 4년 9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나온다.

2009년 이 대회에서 9차 연장까지 치르는 혈투 끝에 최혜용을 물리친 유소연은 "10년 전 영광을 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KIA, 지금 필요한 건 '파이팅'



주전급 선수들 이탈에 시즌 초부터 전력 빠진 신예 선수들은 깜짝 활약·부진 오가며 성장통 엔트리 교체 카드 '마법의 카드' 될까 주목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덕아웃 반전'이 먼저다.

KIA는 7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엔트리를 대거 교체했다.

전날 엔트리에서 빠진 포수 김민식, 외야수 문선재, 투수 이민우, 내야수 최원준을 대신해 투수 강이준·이준영, 포수 신병수, 내야수 황대인을 등록했다.

우완 강인준은 이날 정식 선수가 되어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KIA는 엔트리 교체를 통해 틈새 보강과 분위기 쇄신을 노린다.

6일 엔트리에서 말소된 이들은 기대와는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김민식은 시즌 초반 강렬한 타격으로 눈길을 끌며 안방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타격 하락세에다 수비 안정감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결국 올 시즌 처음 1군에서 말소됐다.

좌완 정용운과 트레이드를 통해 LG트윈스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문선재도 공·수에서의 거친 플레이로 지난 4월 18일에 이어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한차례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이민우와 최원준도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갔다.

이민우는 지난 4월 1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이민우는 전날 롯데와의 사직 경기에서 '악몽의 9회' 시작점이 됐다. 1-4로 뒤진 8회 1사에서 등판한 이민우는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끝낸 뒤 9회 또 마운드에 올랐다.

KIA 타자들이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최형우의 만루 홈런 등을 앞세워 대거 8점을 뽑으며 9-4의 대역전극을 연출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승리가 이민우의 앞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민우는 앞선 8회와 달리 9회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됐다.

선두타자 전준우의 플레이성 타구가 아쉬운 수비로 안타가 됐고, 이수아혜의 3루타가 이어졌다. 이민우는 다음 타자 손아섭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뒤 강판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마무리 김운동이 급히 출격했지만 롯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설상가상 김운동이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쓰러졌다.

경기는 9-10 끝내기 패였다. 이 경기와 함께 KIA의 9연패가 시작됐고, 이민우는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민우는 지난 2일 선발로 뛰었던 '루키' 김기훈이 2군에서 재출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콜업을 받았다. 하지만 NC와의 주말 두 경기에 나와 3이닝 동안 7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3탈삼진 4실점을 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4일 만에 2군행을 통보받았다.

최원준도 재등록 3일 만에 엔트리에서 이름이 빠졌다.

최원준은 올 시즌 이범호의 부상으로 3루 한자리를 차지했지만, 수비 상승세와 달리 기대했던 타격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 타격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조금만 모습을 보였던 최원준은 결국 지난 4월 22일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냈다.



이준영



황대인

그리고 지난 3일 1군으로 복귀했지만 그사이 박찬호가 거침없는 플레이와 자신감으로 3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대했던 신진 선수의 패기와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최원준이 3일 만에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투타 엇박자와 주축 선수들의 실수 연발로 KIA는 답답한 2019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라운드 패배 분위기가 덕아웃까지 이어지면 곤란하

다. 반전을 위해서는 덕아웃부터 움직여야 한다. 벤치는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과 팀워크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대폭적인 엔트리 변동에 감행했다. 7일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엔트리 교체 카드가 올 시즌 흐름을 바꾸는 '마법의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